

ESG 적용을 통한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 고찰

박지선¹ · 김소정²

¹이화여자대학교 · ²수원대학교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Nature-Based Leisure through the Application of ESG

Park, Ji Seon¹ · Kim, So-Jung²

¹Ewha Womans University · ²University of Suwon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nature-based leisure activities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through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principle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armonizing with natural ecosystems, engaging local communities, and establishing responsible governance. Specifically, adopting eco-friendly equipment, using capacity-based visitor management, and providing LNT (Leave No Trace) education can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while enhancing participants' awareness. At the same time, shared-economy models, local instructor training, and regional collaborations stimulate both the local economy and eco-friendly practices. Furthermore, transparent governance, ESG disclosure, and ethical management help balance economic benefits, community welfar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oing so, nature-based leisure activities can evolve into forward-looking models that integrate economic viability, social responsibility, and ecological preservation.

Key words : nature-based leisure, ESG, sustainability

주요어 : 자연기반 여가활동, ESG, 지속가능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o-Jung

E-mail: misqm@naver.com

Received: January, 31, 2025 Revised: February, 28, 2025 Accepted: March, 12, 202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 보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C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에 탄소중립달성을 촉구하고 있다(오진규, 2018). 이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탄소 배출 저감을 핵심 과제로 삼고,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의 지속 가능이용과 보호,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 목표를 설정하였다(환경부, 2021).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스포츠와 여가산업 역시 저탄소 친환경 가치를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스포츠 및 여가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직접 활용하는 스포츠 및 야외 여가활동이 친환경 인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봉주, 박수정, 김민규, 2015). 또한 자연기반 여가활동은 친환경 행동을 동반하며 우리사회의 환경문제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여가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민웅기, 2018; 조중현, 김용근, 2014). 실제로 등산, 트레일 러닝, 수상 스포츠, 산악 자전거, 생태 탐방 등과 같은 자연 기반 스포츠 및 여가활동은 산림, 하천, 해안 등 자연환경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며 환경 인식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신체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며, 이는 삶의 태도 형성과도 연결된다(이수연, 2014). 특히 자연기반 여가활동은 개인의 신체·심리적 웰빙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연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며 여가활동 자체가 환경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김동규, 이정식, 2001; 임진선, 문보영, 2014). 이처럼 자연기반 여가활동이 제공하는 가치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자연기반 여가활동과 자원의 체계적인 제도적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이 결합될 경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건강 증진과 심리적 웰빙,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연을 기반으로 한 여가자원 관리와 여가산업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환경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여가활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전 세계 기업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ESG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장기적 가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경영 지표로 활용된다(Krueger et al., 2021). ESG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환경오염 예방, 친환경·저탄소 경영, 근로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준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Ben-Amar et al., 2017). 그러나 기존 연구나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여가산업 전반에서 ESG 요소를 일관되게 적용·평가하고 있는 체

계적 모델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자연기반 여가 및 관광연구를 통해 행복, 치유관광에 관하여 논의하였고(김진욱, 이충기, 2017; 정산설, 김경배, 이훈, 2021) 이를 통해 사회(지역사회·이해관계자 참여), 스포츠 및 레저관광에서는 자연기반적 가치를 분석하였다(김지나, 2023). 이러한 연구들은 자연기반 여가활동이 심리적, 행복,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연구 주제로 설정되어 있었다. 즉 환경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ESG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여가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가치와 한계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여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여가산업에서 ESG를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려는 과정에 기초자료 제공과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자연기반 여가활동, ESG, 지속가능성의 개념적 정의

1.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가치

자연기반 여가활동(nature-based leisure)은 자연환경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해 레저·관광·스포츠·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모든 유형의 활동을 포괄한다. 예컨대 트레킹, 캠핑, 산악스포츠, 수상 스포츠, 생태관광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활동은 현대인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상실해 온 자연과의 접촉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봉주, 2014). 이것은 개인의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환경보전 의식과 책임 있는 소비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여가 참여자는 자연과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여가활동 과정에서 제공되는 환경 관련 정보와 메시지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 자연보호 및 보존에 관한 신념을 고취하기 때문이다(Thapa, 2010).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가활동 참여자의 친환경 태도와 의식이 강화되며, 나아가 실제 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자연 기반 여가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인의 친환경 의식 제고와 행동 수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가 참여자는 여가활동이 전문화 될수록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발생한다고 했다(Raynal et al., 2020; Anderson et al., 2011).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높은 가치 평가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Cooper et al., 2015; Guckian et al., 2018; Jeanson et al., 2021; 노재현, 2012; 김종순 외, 2016). 이는 자연기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제도적 관리가 친환경행동의 파급효과에 긍정적 개입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연기반 여가활동은 최근 여가산업 내에서도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는다. 숲, 산, 바다, 하천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은 건강·힐링·생태체험 등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경제적 부가가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개인화된 여행·레저 트렌드의 확산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맞춤형 서비스의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인간의 여가활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 같은 환경파괴의 원인을 유발한다(Peeters et al. 2018). 이처럼 자연 기반 여가활동은 산업적 측면에서 유망성이 크지만, 동시에 자연 파괴나 지역사회 갈등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도 높다.

2. ESG의 개념과 특징

ESG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변영조, 우승환, 2022; Galbreath, 2013). ESG의 개념은 1970년대 초반,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영향을 평가할 때 사회적 및 환경적 우려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자리 잡았다(Richardson, 2009). 이후 21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4년 UN Global Compact가 발표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UN Global Compact, 2004).

ESG 경영의 이론적 기반은 여러 학문 분야의 개념과 이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ESG 경영의 사회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론은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즉, ESG의 환경 측면과 관련이 깊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변영조, 우승환, 2022).

최근에는 ESG 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ESG 활동이 고객의 신뢰와 만족,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다(Edmans, 2011). 또한 ESG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Au, Yang, Wang, Chen & Zheng, 2023).

이처럼 ESG 경영은 다양한 학문적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대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SG 하위요소별로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 환경오염, 에너지 효율화를 핵심적인 요소 삼고 있다. 사회는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인권과 안전 보장 및 다양성 고려, 지역사회와 협력 구축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 책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환경과 사회 가치를 기업이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신뢰도 높은 이사회 구성, 감사기구 등이 요구되며,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해 투명한 조직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산업자원통상부, 2021).

3. 지속가능성과 ESG의 중요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 간의 공평한 활용'을 전제로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정립된 개념이다. 이는 기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이념으로, 각종 정책 결정과 산업 경영에서 점차 필수 고려 요소로 자리 잡았다.

지속가능성은 환경, 사회, 경제적 요소가 조화롭게 보전되고 발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기후 변화 대응, 자원 보전,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성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며,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개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개념적 모호성에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기관은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기관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며,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관점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적 속성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내포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장석길, 2023).

둘째,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이 본래 환경 보전과 사회적 공익 실현을 위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개발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기업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일부 기업과 단체는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그린워싱(Green-washing)’¹⁾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가능성의 본래 의미를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실천보다는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실천적 제한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자

연 보전을 우선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반대로 경제 개발을 강조하면 환경 훼손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반관계(trade-off)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모순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존재한다(김민정, 박소희, 윤여창, 201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설계, 기술적 혁신,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구호나 원칙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개념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유도하며, 정책과 기술적 수단을 정교화하는 노력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지속가능성을 현실적 실행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실천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는 지속가능성을 기업 활동과 조직 운영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장기적 가치 창출과 환경·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ESG 지표를 경영 전략과 성과 평가에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최재천 외, 2021; Myung, 2024), 이는 지속가능성의 실천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ESG의 핵심 요소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구성되며, 각각 자원 효율성 및 기후 변화 대응, 이해관계자 만족 및 지역사회 기여,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의미한다. 이 세 요소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며, 특히 산업화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

1)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 환경적인 경영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환경부, 2021).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ESG 경영을 실질적인 실행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다(Myung, 2024). ESG는 직접적으로 세대 간 공평성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기업과 경제주체가 이를 적극 도입·실천할수록 지속가능성이 함께 제고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여가산업 또한 이러한 ESG 원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여가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서 폭넓은 수요를 창출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여가 상품과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 파괴, 지역사회 갈등, 불평등한 자원 분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며, 이는 여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여가산업은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균형 잡힌 경영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ESG 경영 원칙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여가산업은 본질적으로 자연 의존도가 높고 지역 커뮤니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ESG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SG 경영을 통해 여가산업이 보다 책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여가산업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궁극적으로, 환경 파괴, 지역사회 갈등, 불평등한 자원 배분 등은

여가산업이 무책임하게 운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이다.

따라서 여가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ESG 경영 원칙을 자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가산업이 ESG를 기반으로 운영될 때, 환경 보전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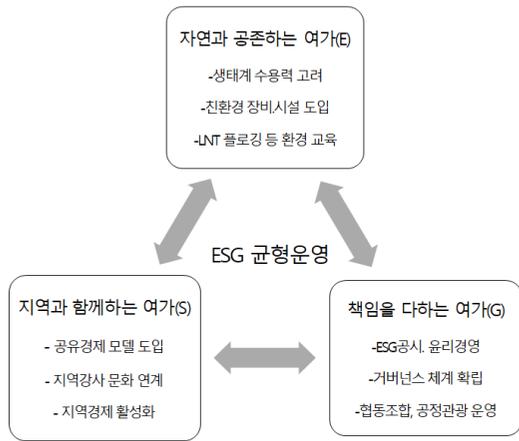
Ⅲ. ESG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 기반 여가활동 실행 전략

1.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ESG 도입 방안

본 연구는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미래 성장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특히 ESG 개념을 자연 기반 여가활동에 적용함으로써, 환경(E) 보호와 자원 보전, 사회(S) 참여와 지역 사회 상생, 지배구조(G) 투명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수용 능력(capacity)을 고려한 적정 방문객 관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공정한 수익 배분 및 협동조합 모델 운영 등은 모두 ESG 원칙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연 기반 여가활동은 산업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미래 성장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SG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자연 자원과 지역사회를 보호·활성화하면서도, 행위 주체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

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또한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산업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태계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과 균형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ESG 전략구조를 다음 <그림1>과 같이 제안 한다.



<그림 1> 여가활동의 ESG 전략구조

2. ESG요인별 세부전략

1) 자연과 공존하는 여가(E)

전통적으로 여가는 개인의 휴식과 오락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현대적 여가는 단순한 소비적 활동을 넘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해양 스포츠, 등산, 트레일 러닝, 어싱 요가, LNT(Leave No Trace), 플로깅과 같은 자연 기반 여가 활동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들 활동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연과 공존하는 여가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각 활동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해양 스포츠와 자연의 조화

해양관광과 레저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중의 관심 증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장승현, 박종태, 2022; 장승현, 오세복, 2016).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해양 레저스포츠가 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마리나 개발, 요트대회, 해양 스포츠 체험 등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해양수산부, 2004).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는 환경 훼손, 정책적 특혜 논란, 지역사회 갈등 등 부정적인 요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박영수, 이상일, 2013),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역시 사회적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Kim, 2024). 해양 스포츠는 스쿠버다이빙, 서핑, 카약, 요트 등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며, 자연환경을 직접 활용하는 특성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보전과 스포츠 활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해양 스포츠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해양 보호구역 내 친환경 레저 전용 구역을 설정하고, 방문객 수를 조절하는 총량제 및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호초 보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참가자들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비 또한 친환경(재생 플라스틱 서핑보드, 생분해성 웨트슈트, 전기 요트 도입) 전환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핑 및 카약 대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는 플로깅(Plogging) 이벤트를 병행하여 해변 쓰레기 수거를 유도하고, 스쿠버다이빙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해양 쓰레기 제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환경 보호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연 기반 레저 활동과 지속가능성

해양레저스포츠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기반 여가활동 또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등산, 어싱²(Earthing), LNT(자연에 흔적 남기지 않기: Leave No Trace)³, 플로깅⁴(Plogging)과 같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자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웰빙을 추구하는 여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 산림 훼손, 토양 침식, 야생 동물 서식지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김호진, 2022).

예를 들어 등산과 트레일 러닝은 자연을 체험하는 대표적인 야외 활동이지만, 탐방객 증가로 인해 토양 침식, 생태계 교란, 쓰레기 문제 등의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탐방로 설계 방문객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탐방로는 내구성이 높은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조성하고, 취약 지역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전 예약제 및 총량제 시스템 도입은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탐방객이 일정 기준을 준수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장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 플라스틱 및 자연 분해 소재로 제작된 등산 장비와 의류 사용을 장려하며, 탐방로 입구에서 친환경 행동 가이드를 제공된다면 자연 보호 의식이 강화 될 것이다. 화해야 한다. 특히 LNT 교육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자연생태계, 역사문화자원, 다른 탐방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원 훼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이주희, 2007). 이를 통해 탐방객들이 자연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플로깅은 여가와 환경 보호를 결합한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는 트레일 러닝, 하이킹, 마라톤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플로깅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친환경 인증서 제공, ESG 기여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방치된 공원을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플로깅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재화, 2023).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맨발 걷기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문수인, 2023), 이는 도시 내 방치된 공간을 재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여가 활동을 통한 자연 보호 노력은 단순한 환경 보전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플로깅과 지역 여행을 결합한 체험 상품을 개발하여 친환경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었다(진주리, 2021), 이는 지속가능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보여주는 바이다. 궁극적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여가 활동은 개인의 웰빙을 증진함과 동시에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

2) 어싱(Earthing, 또는 접지)**은 신체가 지구의 자연적 전하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생리적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Menigoz, et al., 2020).
 3) LNT(Leave No Trace)는 흔적남기지 않기로, 야외 활동 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과 7가지 실천 지침을 의미한다. ①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기, ②내가 머문 곳은 자연 그대로 남기기, ③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기,④자연이 원래 모습 그대로 있도록 하기, ⑤불 사용은 신중하게 하기, ⑥야생 동물을 존중하기, ⑦다른 관광객 배려하기 (Simon & Alagona, 2009)
 4)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조깅)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한다(최원석, 이혁기, 2024).

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과 함께하는 여가(S)

지속가능한 여가는 단순한 개인적 활동을 넘어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공유경제⁵⁾(sharing economy), 지역 여가문화 강사 활성화, 자연 친화적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역 경제 연계 등의 접근을 통해 여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① 지역 여가서비스 공유경제 모델 구축

지역 사회 기반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가서비스 공유경제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여가 서비스 및 시설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가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공공 여가시설에서 친환경 레저스포츠 장비(재생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서핑보드, 친환경 러닝화 등)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여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역 여가문화 강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여가활동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여가 문화 강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강사는 주민들에게 친환경 여가 기술 및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를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여가 참여도

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를 선도한다.

또한 환경 보호 교육을 포함한 여가 지도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여가 실천 방법(LNT 원칙, 지속가능한 장비 사용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자연 친화적 여가프로그램 개발

자연환경을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가능한 여가 활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해안 지역에서는 해양 스포츠(서핑, 카약, 패들보드 등)와 환경 보호 활동(플로깅,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악 지역에서는 트레일 러닝, 친환경 하이킹, 어싱 등을 연계하여 자연 보호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LNT원칙을 기반으로 한 탐방 및 여가 활동을 운영하면,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관광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여가 서비스 모델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여가 활동이 자연 보호와 결합되어 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④ 여가 서비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여가 서비스는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여가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경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가 서비스 스타트업 육성 및 친환경 레저 용품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 상권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여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중요하게는 지역 스포츠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거나, 스포츠 이벤트 수익의 일부를 지역 환경 보호 및 사회 공헌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5) 공유경제(共有經濟)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이다 (매일경제, 2025.01.30. 인출)

것이며, 플로깅 행사 참가자나 친환경 스포츠 장비를 사용하는 선수들에게 지속가능성 포인트를 제공하여, 지역 내 친환경 제품 할인 혜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3) 책임을 다하는 여가(G)

책임을 다하는 여가는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스포츠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은 지속가능한 여가 활동의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협동조합 운영, 공정관광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 여가 서비스 공유경제 모델 도입, ESG 기여형 여가 쉼터 운영,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가 생태계 구축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①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협동조합 운영

여가 산업은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활동이므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ESG경영이 여가산업에서 강조되면서, 여가활동 또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활동이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 환경 단체 등이 협력하여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투명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환경 보호, 지역사회 기여,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여가서비스 운영 전략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지역 기반 지속가능한 여가활동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가 활동은 특정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지역 사회, 지방정부, 환경 단체, 레저 스포츠 기업이 협력하는 ‘여가활동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역할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시스템을 도입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폐기물 재활용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에서 실시하는 레저 스포츠 이벤트나 대회는 많은 인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18 FIFA 월드컵 러시아의 경우,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7%가 교통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국제 항공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처럼 이러한 이동수단에 의한 탄소 배출은 환경 오염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들어 대회를 운영을 위해 참가비 일부를 환경 보호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든지, 행사장 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 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할 권장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친환경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여가활동 거버넌스 체계는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단순히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여가 문화를 형성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때 여가활동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ESG 공시 의무화 및 운영 투명성 강화 여가활동의 일환인 레저 스포츠 기업과 단체

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 레저 스포츠 기업은 친환경 운영, 지역사회 기여,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ESG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UNFCCC(2024)는 스포츠 단체가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여가활동에서도 ESG 공시 기준을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여가에서의 ESG 공시 주요 내용

분류	내용
환경 (Environmental)	환경오염(탄소배출, 폐기물), 자연과 공존
사회(Social)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
거버넌스(Governance)	환경 보호(탄소배출, 폐기물)에 대한 평가지표,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

④ 여가산업 내 윤리적 경영 원칙 도입 및 ESG 평가 지표 개발

여가산업이 책임 있는 여가 문화를 형성하려면 윤리적 경영 원칙을 도입하고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가 서비스 기업과 단체는 공정한 경영을 실천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Henisz, Koller와 Nuttall(2019)은 기업의 ESG 경영이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과 투자 유치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이 여가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윤리적 경영 원칙을 도입한 여가서비

스 기업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ESG 관점의 실행 전략은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요소를 자연 기반 여가활동 전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장기적·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 한계를 종합 검토한 뒤, 모호한 지속가능성 개념을 ESG 전략과 결합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전략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자연 기반 여가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여가활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E), 사회(S), 경제(G)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ESG 기반 전략이 필수적이다. 해양레저스포츠와 자연 기반 여가활동은 자원의 소비를 동반하며, 무분별한 이용이 생태계 교란, 환경오염,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총량제 및 사전 예약제 도입, 친환경 장비 사용 확대, 환경 보호 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여가활동이 단순한 소비에서 벗어나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 스포츠 및 산림 기반 활동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플로깅, 해양 쓰레기 정화, 생태계 보호 캠페인과 같은 환경적 가치를 반영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여가 정책을 수립하고, ESG 기준을 반영한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레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여가활동의 실현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여가문화의 질적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자연 기반 여가활동이 환경 보전, 지역사회 발전, 경제적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친환경 구호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지속적 평가·피드백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분배가 보장될 때, 자연 기반 여가활동이 지역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을 ESG 도입을 통해 고찰하였고 자연과 공존하는 여가(E), 지역과 함께하는 여가(S), 책임을 다하는 여가(G)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략 구조를 설정하였다.

종합해보면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E), 사회(S), 경제(G)적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ESG 원칙을 반영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인증제 도입과 책임 있는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적 도전 과제와 한계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친환경 장비 사용 확

대’나 ‘ESG 공시 의무화’와 같은 정책이 도입될 경우, 기업과 개별 활동 주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친환경 장비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간소화된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질적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책 적용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ESG 전략을 다양한 지역(산악, 해안, 도서 등)과 여가활동 유형(트레킹, 수상스포츠, 생태체험 등)에 적용하여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연구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ESG 기반 실행 전략이 자연 기반 여가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실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규, 이정식(2001). 스포츠환경론.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 김민경, 박소희, 윤여창(2019). 협력적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양립가능성: 국유림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2), 167-195.
- 김봉주(2014). 진지한 여가 참여자의 친환경 여가활동 참여과정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김봉주, 박수정, 김민규(2015).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친환경행동 형성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4(5), 607-618.
- 김종순, 원형중(2016). 남성 등산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장소애착, 환경태도 및 친환경행동의 관계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5(2), 499-509.
- 김지나(2023). 자연기반해법 관점에서 본 도시 여가산업으로서 국내 승마관광의 현황과 의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6(2), 73-94.
- 김진옥, 이충기(2017). 한국형 치유관광의 개념모델 정립 및 치유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자연기반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연기반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5), 5-21.
- 민웅기(2018). 자연환경 기반 한국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고찰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해양비즈니스*, 39, 1-28.
- 박영수, 이상일(2013). 해양수상 스포츠 진흥을 위한 경정 수익금 환원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1), 93-99.
- 산업자원통상부(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 오진규(2018). 신기후체제로서의 파리협정과 후속협상의 협상쟁점과 시사점. *한국기후변화학회지*, 9(4), 343-355.
- 윤정희, 서금란(2024). 자연을 느끼는 발걸음: 맨발걷기 하위문화의 특성과 기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7(3), 1-20.
- 이수연(201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 여가스포츠 참여 활동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102-113.
- 이주희(2007). 우리나라에서의 LNT (Leave No Trace) 등산문화 교육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3-22.
- 임진선, 문보영(2014).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체험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요트 참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8(3), 99-116.
- 장석길(2023). 지속가능발전의 구성개념 및 속성-연속성, 양적 변화,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철학탐구*, 69, 195-224.
- 장승현, 박종태(2022). 해양스포츠 연구의 지형 및 대안적 방향 탐색. *한국체육정책학회지*, 60, 121-140.
- 정산설, 김경배, 이훈(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연기반 여행은 사람들의 여행행복을 증진시키는가?-위험지각, 주의회복이론 및 여행행복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5(5), 33-56.
- 조중현, 김용근(2014). 생태관광의 새로운 해석과 비전. *관광연구저널*, 28(1), 131-144.
- 해양수산부(2004). 제1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서울: 해양수산부.
- 홍재화(2023). 홍재화의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맨발걷기 운동 '열풍'. *한경일보*. <https://lrl.kr/hcVm>
- 환경부(20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정부
- Adidas. (2024). *Sustainability Recognition and History*. Adidas. <https://www.adidas-group.com/en/sustainability/focus-sustainability/recognition-history>
- Anderson, L. E., & Loomis, D. K. (2011). Scuba diver specialization and behavior norms at coral reefs. *Coastal Management*, 39(5), 478-491.
- Au, A. K. M., Yang, Y. F., Wang, H., Chen, R. H., & Zheng, L. J. (2023). Mapping the Landscape of ESG Strategies: A Bibliometric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Sustainability*, 15(24), 16592.
- Cooper, C., Larson, L., Dayer, A., Stedman, R.,

- & Decker, D. (2015). Are wildlife recreationists conservationists? Linking hunting, birdwatching,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79(3), 446-457.
- Edmans, A. (2011). Does the stock market fully value intangibles? Employee satisfaction and equity pric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1(3), 621-640.
- Guckian, M. L., Danylchuk, A. J., Cooke, S. J., & Markowitz, E. M. (2018). Peer pressure on the riverbank: Assessing catch-and-release anglers' willingness to sanction others'(bad)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19, 252-259.
- Henisz, W., Koller, T., & Nuttall, R. (2019). Five ways that ESG creates value. *McKinsey Quarterly*, 4, 1-12.
- Jeanson, A. L., Cooke, S. J., Danylchuk, A. J., & Young, N. (2021). Drivers of pro-environmental behaviours among outdoor recreationists: The case of a recreational fishery in Western Canada.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89, 112366.
- Kim, N. G. (2024). Analyzing Social Discourse and Marine Leisure Safety in Korea to Help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Coastal Research*, 116(SI), 448-452.
- Krüger, P. (2015). Corporate goodness and shareholder weal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5(2), 304-329.
- Menigoz, W., Latz, T. T., Ely, R. A., Kamei, C., Melvin, G., & Sinatra, D. (2020). Integrative and lifestyle medicine strategies should include Earthing (grounding): Review of research evidence and clinical observations. *Explore*, 16(3), 152-160.
- Myung, W. (2024). Conceptualization of ESG Management Values of Professional Sports Clubs: From Consumers' Perspective. *Sustainability*, 16(17), 7257.
- Newsome, D., Moore, S. A., & Dowling, R. K. (2012). *Natural area tourism: Ecology, impacts and management*. In *Natural Area Tourism*. Channel view publications.
- Nike Inc. (2022). *FY22 Nike Impact Report*
- Peeters, P., Gössling, S., Klijs, J., Milano, C., Novelli, M., Dijkmans, C., ... & Postma, A. (2021). *Research for TRAN Committee-Overtourism: impact and possible policy responses*.
- Raynal, J. M., Weeks, R., Pressey, R. L., Adams, A. J., Barnett, A., Cooke, S. J., & Sheaves, M. (2020). Habitat-dependent outdoor recreation and conservation organizations can enable recreational fishers to contribute to conservation of coastal marine ecosystems. *Global Ecology and Conservation*, 24, e01342.
- Richardson, B. J. (2009). Keeping ethical investment ethical: Regulatory issues for investing for sustaina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87, 555-572.
- Sharma, S., & Henriques, I. (2005). Stakeholder influences on sustainability practices in the Canadian forest products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6(2), 159-180.
- Simon, G. L., & Alagona, P. S. (2009). Beyond leave no trace. *Ethics Place and Environment*. 12(1), 17-34.

- Thapa, B. (2010). The Mediation Effect of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on Environmental Attitude-Behavior Correspondenc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41(3), 133-150.
- UN Global Compact. (2004).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Retrieved on January 26, 2025, from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280911488968799581/pdf/113237-WP-WhoCaresWins-200>
- United Nations. (2018). *Sports for Climate Action Framework*. Global Climate Action.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Retrieved on January 26, 2025, from <https://www.are.admin.ch/home/media/publications/sustainable-development/brundtland-report.html>.